

초기 순정만화의 서사 변화 - 1957~1969년을 중심으로*

김소원**

1. 들어가며
2. 작품분석
 - 2-1. '순정'한 만화의 등장: 1957~1964년
 - 2-2. 엄희자의 등장과 순정만화의 혁신: 1965~1969년
3. 판타지의 부상과 순정만화의 진화
4. 서사의 변주와 장르의 융합
5. 순정만화의 몰락
6.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57년 한성학의 <영원한 중>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한국 순정만화의 서사적 변화를 고찰해 그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연구 범위를 1957년부터 엄희자가 데뷔한 1964년 이전까지 그리고 1965년부터 1969년까지의 두 시기로 나누어 진행했다. 엄희자의 데뷔작인 <행복의 별>은 매우 혁신적인 작품으로 이후의 순정만화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한국만화박물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청강만화역사박물관 소장자료 그리고 개인 소장 자료 등을 종합했고 그중 17편의 작품을 추려 서사를 살펴보았다.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82453)

** 경희대학교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초기 순정만화의 서사는 한국전쟁 직후의 사회적 현실과 독자층의 요구를 반영하며 서사를 구축했다. 초기 순정만화는 전쟁, 부모의 부재, 가난 등 암울한 현실을 배경으로 소녀들의 체념과 희생을 중심으로 한 신파적 서사를 담았다. 이는 당시 여성에게 강요된 헌신과 희생의 가치관이 만화 속에 투영된 결과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순정만화는 기존의 신파에서 벗어나 판타지 장르를 주요 서사로 채택하며 변화를 모색했다. 판타지는 순정만화 특유의 화려한 시각적 표현을 극대화하며 독자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순정만화는 세계관과 서사를 확장하며 보다 입체적이고 능동적인 주인공을 등장시키기 시작했다. 이처럼 순정만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했다. 그러나 1968년 이후 강화된 만화 검열은 순정만화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검열은 만화를 어린이용으로 제한하고, 순정만화 특유의 화려한 시각적 표현과 장편 서사를 전개할 자유를 억압했고 순정만화는 빠르게 쇠퇴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1960년대 순정만화가 신파에서 판타지를 거쳐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명랑의 서사로 발전했고 시대적 상황과 독자층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했다는 것을 밝혔다.

(주제어: 순정만화, 만화, 한국만화, 신파, 판타지, 명랑, 순정만화 서사, 1950년대, 1960년대)

1. 들어가며

‘순정만화’는 여성과 10대 여학생을 주요 독자로 하며 시각 표현상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만화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순정만화는 창작 시기에 따라 그 특징이 매우 달라 이러한 정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순정만화가 등장한 이후 1960년대 초까지는 ‘순정’이라는 표현으로 그 정체성을 설

명할 수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의 많은 작품은 ‘순정’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순정만화’라는 장르명의 모호함에 대한 다양한 고민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상정은 순정만화를 세 장르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1957년에서 1962년 사이를 ‘가족/순정만화’로, 1963년에서 1976년까지를 ‘소녀만화’로 1977년 이후를 ‘감성만화’로 정의하고 ‘감성만화’는 1977년에서 1984년 사이의 모색기, 1985년에서 1996년까지 개화 및 만개기, 1997년 이후 쇠퇴기로 다시 세분한다.¹⁾ 박인하는 순정만화를 세대별로 구분한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를 순정만화 1세대로, 1970년대 중반 이후는 순정만화의 공백기, 2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중반, 1988년 이후를 3세대로 나눈다.²⁾ 이선영과 이승진은 웹툰으로 만화 시장이 확대되면서 순정 로맨스의 틀에서 순정만화를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고, 순정만화는 혁신적으로 변화해 종래의 관습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순정 장르에 대한 모호한 구분은 선입관 형성과 장르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순정만화 장르 자체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

연구자는 『영원한 중』이 출판된 1957년부터 1964년 엄희자의 데뷔 전까지를 ‘순정만화의 여명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엄희자의 데뷔 이후부터 1969년까지를 ‘순정만화의 정착기’로, 만화 검열과 합동 출판사의 시장독점과 전횡이 극에 달했던 1970년대는 ‘순정만화의 공백기’로 정의한다. 그리고 1980년부터 1988년 순정만화 전문 잡지인 『르네상스』가 창간되기 전까지를 ‘순정만화의 부흥기’, 1989년부터 경제위기 전인 1996년까지를

1) 한상정, 「순정만화라는 유령 - 순정만화라는 장르의 역사와 감성만화의 정의」, 『대중서사연구』 제22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6, 298-301쪽.

2) 박인하, 『누가 캔디를 모함했나: 박인하의 순정만화 맛있게 읽기』, 살림, 2000, 24-25쪽.

3) 이선영, 이승진, 「순정만화의 장르 세분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제11권 5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249-250쪽.

‘순정만화의 황금기’, 1997년 이후 웹툰 시대를 ‘순정만화의 쇠퇴·전환기’로 구분한다.⁴⁾

이처럼 순정만화라는 용어는 오랜 기간 관습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시기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1957년부터 1969년까지의 순정만화는 ‘10대 초반의 소녀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화’로 정의할 수 있다. 시각 표현의 특징은 엄희자 이후에 확립된 것이며 성인 여성이 독자로 편입된 것은 1980년대 이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순정’이라는 장르명은 순정만화에 대한 편견과 모호한 정의를 만들었고 초기 순정만화에 대해서는 여자아이들이 보는 ‘순정’적인 신파가 서사의 주류라는 편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편견은 순정만화에 대한 선행연구, 특히 1980년대 이전의 순정만화에 관한 연구 자체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여자아이들이 보는 독특한 만화가 ‘순정’만화로 불리게 된 ‘순정적인’ 작품이 주류였던 시기는 한국만화의 역사에서 아주 짧은 시기에 불과하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순정만화에서 순정의 서사는 희석되었으며 다양한 이야기와 장르로 변주되었다.

본 연구는 1957년 간행된 한국 최초의 순정만화인 한성학의 〈영원한 종〉부터 1969년까지 순정만화의 서사적 특징과 그 변화를 다룬다. 많은 연구자가 간과했지만, 1957년부터 1969년 사이 순정만화의 서사에도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은 이 시기 순정만화 서사의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내고 그러한 변화의 배경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1957~1969년의 순정만화를 엄희자의 데뷔 전과 후로 구분하고 1957년에서 1964년을 순정만화 여

4) 김소원, 『시대가 그려낸 소녀: 한일 순정만화의 역사』, 소명출판, 2021, 55-59쪽.

명기로, 1965년부터 1969년까지를 순정만화 정착기로 나누어 작품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박물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강만화역사박물관, 개인 소장자료 등을 종합하여 총 52 작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들 작품 중 1권부터 완결권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작품은 매우 드물어 본 논문의 분석 대상 작품은 총 17편이다⁵⁾. 당시 만화는 한 작품이 보통 10권 내외로 구성되었지만, 본 연구는 3권 이상 남아 있는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영원한 중>은 한 권⁶⁾이고, <울 밑에 선 봉선이>는 상, 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있고 총 13편이 3권 이상 남아 있지만 1964년 이전 작품이 매우 부족하여 1권만 남아 있는 송순희의 <사랑이 메아리치면>도 포함했다. 또한 엄희자의 데뷔작인 <행복의 별>은 현재 1권만 소재가 파악되지만, 순정만화의 혁신을 가져온 작품으로 만화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해 총 17편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서사의 변화를 고찰했다.

한국만화 연구의 큰 장애물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자료 부족이다. 1960년대 만화는 주로 단행본으로 발행되었고 이들 단행본은 만화방을 통해 유통되었다. 당시 만화방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기존 만화책은 폐기처분 되었다. 만화방을 통해 유통된 작품은 서점에서 구매할 수 없었고 만화에 대한 사회적 터부로 인해 만화책을 소장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만화방에 유통된 만화책은 저렴한 종이를 사용해 보존에 취약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이유로 1960년대 만화가 현재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

5) 엄희자의 『새벽중』, 『고요한 새벽중』, 『맑은 새벽중』은 연속된 서사의 작품이므로 하나의 작품으로 보았다.

6) <영원한 중>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소장자료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열람했으며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 함께 단행본에 실려있어 쪽수는 115쪽에서 178쪽까지로 표기되어 있다. 판권 페이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출판정보는 알 수 없다.

고 싶다.

2. 작품분석

1957년에서 1964년까지의 작품은 총 4편, 1965년 이후 작품은 총 13편을 분석했다. 1960년대 활동한 주요 순정만화가로는 권영섭, 민애니, 박수산, 송순히, 엄희자, 윤애경, 장은주(가나다순)를 꼽을 수 있으며, 분석 작품에 장은주 이외의 주요 작가 작품이 한편 이상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작품은 주로 단행본 형태로 남아 있고 원고 원화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작품 목록

출판 시기 ⁷⁾	작가	제목	발행처		소장처
1957	한성학	영원한 종	미상	단권	한국만화박물관
1960.7	권영섭	울 밑에 선 봉선이	남훈사	상, 하	한국만화박물관
1964.1	송순히	사랑이 메아리치면	한국문고	1	한국만화박물관
1964.10	엄희자	행복의 별	제일문화사	1	개인 소장
1965.1	향진	여학생	동원문화사	1~3	한국만화박물관
1965.9	엄희자	공주와 기사	오성문화사	2~3, 6~7	한국만화박물관

1965.11	박수산	보보공주	백마문화사	1, 7~10	청강만화역사 박물관
1966.12	권영섭	산들바람	명신문화사	1~9	한국만화박물관
1966.12	권영섭	은색의 십자가	명신문화사	1~3부 총 25권	한국만화박물관
1967.4	권영섭	푸른 등대	해동문화사	1~8	한국만화박물관
1967.6	엄희자	노래의 날개	새나라 문화사	1~3, 5	한국만화박물관, 청강만화역사박물관 ⁸⁾
1968.7	박수산	꽃 먹는 여왕	국제문화사	1~3	청강만화역사 박물관
1969.5	엄희자	〈새벽종〉 시리즈	태창출판사	총 7권	개인 소장
1969.5	엄희자	〈공주 아리아〉 시리즈 ⁹⁾	태창출판사	1~10	개인 소장
1969.9	윤애경	하얀 꿈길	신일문화사	1~3, 5	청강만화역사 박물관
1969.10	민애니	행주치마 ¹⁰⁾	우주문화사	1~3	청강만화역사 박물관
1969.10	엄희자	산 소녀	아세아문고	1~4	한국만화박물관

7) 출판 시기는 1권, 혹은 가장 빠른 권 기준.

8) 한국만화박물관은 1~3권을 소장하고 있고, 청강만화역사박물관은 5권 원화를 소장하고 있다.

9) 『공주 아리아』, 『공주 아리아-수난의 권』, 『공주 아리아-승리의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단행본이 아니라 원화를 소장하고 있지만, 책의 발행일자, 발행처 등 판권이 표시되어 있다.

2-1. ‘순정’한 만화의 등장: 1957~1964년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순정만화는 1957년 발행된 한성학의 〈영원한 중〉¹¹⁾ 이 작품은 한국전쟁 직후의 혼란과 비극을 배경으로 한다. 이 만화는 자신이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며,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전쟁 중 잃어버린 쌍둥이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녀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의 친딸인 쌍둥이 자매를 찾는 이야기이다. 출생의 비밀,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 착하지만 가난한 소녀 등은 여명기 순정만화의 클리셰로 자리 잡게 되는 요소들이다.



〈그림 1〉 한성학 『영원한 중』

〈영원한 중〉은 60쪽 남짓한 짧은 분량에 여러 차례의 우연이 겹친 작위

11) 정확히는 현존하는 순정만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 한성학의 『영원한 중』이다. 1970년대 이전의 한국만화는 온전하게 남아 있는 자료가 드물어 『영원한 중』보다 앞서 나온 작품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적인 설정 탓에 스토리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소녀를 전면에 내세운 서사, 꽃장식을 활용한 연출, 긴 속눈썹과 큰 눈으로 묘사된 주인공 캐릭터 등은 당시로서는 독창적이며 순정만화적인 요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만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영원한 종> 이외의 순정만화 작품이 남아 있지 않으며, 본격적으로 한국 순정만화의 기틀을 다진 것은 권영섭이었다. 권영섭은 풍자만화로 데뷔한 후, 어린이 신문에 과학 만화를 연재했으며 단행본으로 발표한 <울 밑에 선 봉선이>가 크게 히트한 이후 오랫동안 인기 작가로 활동했다. 흥난파의 '울 밑에선 봉선화'에서 착안한 제목¹²⁾인 <울 밑에 선 봉선이>는 상하 두 권으로 발행되었다. 이 작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권영섭은 '봉선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여러 후속 작품을 발표했다.¹³⁾ 세계관이 다른 별개의 작품에도 봉선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제목에 '봉선이'가 포함된 많은 작품이 나왔다. 이는 특정 캐릭터를 여러 작품에 활용한 사례로 소년만화와 명랑만화에서는 드물지 않지만¹⁴⁾, 순정만화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라는 점도 흥미롭다.

12) 권영섭은 인터뷰에서 이 작품 제목이 흥난파의 노래 '울 밑에 선 봉선화'에서 착안한 것이며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이면서 감성적인 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창작했다고 밝혔다. (김소원, 『한국만화사 구술채록 연구』 권영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3, 61~63쪽.)

13) 『봉선이와 아나』, 『봉선이하고 바둑이』, 『칠석날의 봉선이』, 『봉선이』 등이 있다.

14) 1960년대 임창 작가의 '땡이' 시리즈, 경인의 '까불이' 시리즈, 박기준의 '두통이' 시리즈, 방영진의 '약동이와 영팔이' 시리즈 등이 인기를 끌었다. 1970~1980년대 길창덕의 '꺼병이', 이상무의 '독고탁', 이현세의 '까치(오혜성)', 허영만의 '이강토' 등 인기 작가의 대표 캐릭터는 다양하다.



〈그림 2〉 권영섭, 『울 밑에 선 봉선이』

〈울 밑에 선 봉선이〉는 봉선의 아버지가 나쁜 친구를 만나면서 술에 의지하고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과정과 그로 인해 봉선에게 닥치는 많은 불행을 그린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호 아래 부족함 없는 일상을 보내던 봉선에게 일어나는 불행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탓이다. 어머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봉선이 겪는 불행을 막지 못하고 이야기는 봉선의 죽음으로 끝난다.

송순희의 〈사랑이 메아리치면〉(1964)은 출생의 비밀과 아버지의 부재, 가난한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다. 첫 장면으로 이탈리아에서 귀국해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소프라노 은혜를 보여준 후 영자가 은혜의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난다. 주인공인 영자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가난 때문에 길에서 꽃을 팔고 있다. 이야기는 영자가 은혜의 친딸일 것을 암시하며 진행된다.

이처럼, 여명기의 순정만화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어떤 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주요 서사 동력으로 작용하며, 이는 아무

런 안전장치 없이 어린 주인공이 불행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 1950년대 말은 아직 전쟁의 상흔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던 시기로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고, 전사하거나 실종된 아버지, 또는 부상을 당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아버지들도 많았다. 여명기 순정만화에서 아버지의 부재가 자주 등장한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1950년대는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가족과 기존 사회질서가 붕괴한 절망의 시기이자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이 교차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아동문학 작품에서 아버지는 실종되거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으며,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¹⁵⁾ 만화 역시 당시의 사회상을 투영한다. 여명기 순정만화에서 아버지는 종종 무기력하거나 주인공의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그려졌으며 아예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작품도 적지 않다.

그리고, 여명기 순정만화는 ‘순정소설’의 영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1950년대의 아동 잡지에 ‘순정’이라는 표제를 사용한 소설이 다수 연재되었으며, 이들 소설은 10대 소녀를 주요 독자로 삼았다. 그리고 부모의 부재나 결핍으로 인한 비극을 겪는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다. 이들 소설의 특징은 소녀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은 결핍을 지니며 그것을 채워줄 가족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거나 유사 가족을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를 지탱하는 감성은 신파성이다.¹⁶⁾ 특히 이들 소설의 삽화는 다른 장르의 소설 삽화들과 구분되는 스타일을 보여준다.¹⁷⁾¹⁸⁾ 이와 같이 순정소설은 여명

15) 이승득, 「1950년대 아동소설 가족 담론 연구」, 『문창어문논집』 제48권, 문창어문학회, 2011, 293쪽.

16) 서은영, 「‘순정’장르의 성립과 순정만화」, 『대중서사연구』 제2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5, 170-171쪽.

17) 서은영은 한국 순정소설의 삽화와 일본 소녀만화와의 유사성을 지적한다. (서은영, 「‘순정’장르의 성립과 순정만화」, 『대중서사연구』 제2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5,

기 순정만화의 신파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한성학 이후 1964년 엄희자가 데뷔하기 전까지의 작품은 순정적 이야기와 ‘신파’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명기 순정만화 서사의 핵심이기도 한 신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신파의 서사적 특징은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고 선과 악의 대비가 분명하며 권선징악의 결말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신파의 전개 방식은, 1. 순진한 주인공, 2. 기구한 운명 3. 주인공의 고난과 희생, 의무 수행을 위한 인내, 4. 악이 물러감, 5. 화해, 6. 선(정의)의 승리로 정리할 수 있다.¹⁹⁾ 실제로 여명기 순정만화의 플롯은 신파의 전형적인 전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쟁 직후의 사회를 반영한 슬픈 서사는 소녀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신파만으로는 인기를 지속하기 어려웠다. 1958년 한국 최초의 만화 총판인 서울총판이 설립되면서 전국적으로 만화방이 급증했고 출판되는 만화의 양이 대폭 증가한다. 만화의 양적 증가는 만화의 장르 분화로 이어진다. 이 시기 순정만화 중 남아 있는 작품이 많지 않아 연구에 한계가 있으나 같은 시기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 장르가 SF, 괴기, 명랑, 액션 등 비교적 다양한 서사의 변주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명기 순정만화는 기본 플롯에 충실했고 서사는 비교적 단조로웠다. 따라서 순정만화 독자들은 새로운 작품을 요구했고 순정만화의 흐름을 단번에 바꿔 놓는 작가가 등장한다. 바로 엄희자이다.

161-163쪽.)

18) 순정소설의 삽화 일부는 1940~1950년대 일본 소녀잡지의 일러스트, 특히 가츠야마 히로시(勝山ひろし), 마쓰모토 카츠지(松本かつじ) 등 인기 작가의 그림체와 매우 흡사하다.

19) 서정남, 「신파적 서사 양식의 유입과 전개, 그리고 남북한 영화에서의 계승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제34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 148-149쪽.

2-2. 엄희자의 등장과 순정만화의 혁신: 1965~1969년

1964년 데뷔한 엄희자는 당시 매우 드문 여성 만화가였다. 엄희자의 데뷔작인 〈행복의 별〉은 표지에 구성 조원기, 엄희자 그림으로 표기되어 있다. 엄희자는 조원기의 문하생이었고, 훗날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된다. 조원기는 순정만화로도 분류되는 작품도 남긴 작가로 엄희자와 한 집에서 작업하며 두 사람의 문하생들이 서로의 일을 도왔다고 한다.²⁰⁾ 이러한 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엄희자의 초기 작품에는 조원기의 영향이 상당 부분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는 보통 엄희자가 이룬 시각적 표현의 혁신에 주목하지만, 〈행복의 별〉은 여명기 순정만화의 주류였던 신파 서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준 점에서도 혁신적이다. 〈행복의 별〉은 현재 1권의 내용만을 파악할 수 있으나, 부유한 소녀 유미가 주인공이고 유미의 어머니를 찾아온 정체불명의 여성, 유미가 우연히 만난 기억을 잃은 금발 소녀, 아버지가 가져온 이국적인 조각상 등 앞으로 전개될 여러 사건을 암시하는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 점에서 이전의 순정만화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서사적 입체성과 의외성을 보여준다. 시각 표현과 서사 양면에서 변화를 이끈 이 작품은 소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엄희자의 활약은 이후 여성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엄희자가 데뷔한 후 1965년 무렵부터 순정만화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진다. 엄희자의 작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다른 순정만화가들의 작화도 변화했고²¹⁾ 뒤이어 서사 역시 달라진다. 〈행복의 별〉은 순정만화에 큰 전

20) 백정숙, 「소녀세계의 창을 연 엄희자」,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1995, 182-183쪽.

21) 이에 대해 1960년부터 순정만화를 창작한 권영섭은 엄희자의 스타일이 인기를 끌면서 출판업자들이 작가들에게 엄희자의 작품과 유사한 스타일을 요구했고 작가들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회술한다. (김소원, 『한국만화사 구술채록 연구』 권영섭, 2014, 182-183쪽.)

환점이 된 작품으로, 여명기의 순정만화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엄희자의 초기 작품 일부²²⁾가 시각 표현에서 일본만화를 참고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행복의 별〉의 표지화는 소녀만화 잡지인 『주간 소녀 프렌드(週刊少女フレンド)』 1964년 5월 24일 호에 실린 타니 유키코(谷悠紀子)²³⁾의 작품 〈은방울꽃 천사(スズラン天使)〉²⁴⁾의 속표지 그림과 매우 유사하다. 표지화뿐만 아니라 주인공 소녀의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등에서도 일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한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두 작품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타니 유키코는 1958년 단행본으로 데뷔했으며, 1964년부터 소녀만화 잡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66년부터 쇼가쿠칸(小学館)의 학년지(学年誌)²⁵⁾에 약 10년 동안 발레를 소재로 한 소녀만화를 여러 편 연재했고 1999년 사망했다.²⁶⁾ 타니 유키코는 1960년대 초반 활동한 다른 소녀만화가들과 비교해 탁월한 그림 실력을 보여준 작가로 엄희자가 타니 유키코의 그림을 참고한 이유를 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3, 152-153쪽.)

22) 〈행복의 별〉뿐 아니라 1965년 작품 〈공주와 기사〉와 『소녀 프렌드』 1965년 5월 4일 호에 실린 타니 유키코의 단편 〈왕녀 카테리나(王女カテリーナ)〉의 등장인물의 의상과 조형성이 매우 흡사하다. 〈노래의 날개〉(1965)의 일부 장면이 1965년 1월 5일 자 『소녀 프렌드』에 실린 「아코(亜子)」(후카자와 이치오(深沢一夫)원작, 호소노 미치코(細野みち子)그림)의 한 장면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서 서사의 유사성은 찾기 힘들다. (김소원, 『시대가 그려낸 소녀: 한일 순정만화의 역사』, 소명출판, 2021, 114-148쪽.)

23) 본명 타니가키 유키코(谷垣悠紀子). 작품의 필명은 谷ゆき子, 谷幸子, 谷悠紀子 등 여러 표기가 있지만 모두 '타니 유키코'로 읽는다.

24) 스토리는 애니메이션 각본가 츠지 마사키(辻真先)가 담당했다. 그는 만화 스토리와 미스터리, 여행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작가로 활동했다. 츠지 마사키는 「은방울꽃 천사」를 비롯해 타니 유키코의 작품 일곱 편의 스토리를 담당했다.

25) 『소학교 ○학년』이라는 제목으로 학년별로 발행되는 잡지. 만화도 실리지만, 교과서 기반의 학습 내용과 교양 기사, 읽을거리 등으로 구성된다.

26) 図書の家 編, 『超展開 バレエマンガ 谷ゆき子の世界』, 立東舎, 2016, 8쪽.

수 있다.



〈그림 3〉 좌) 타니 유키코 〈은방울꽃 천사〉, 『소녀 프렌드』 1964년 5월 24일 / 우) 엄희자 〈행복의 별〉 1964년 10월 20일

엄희자가 타니 유키코의 그림을 표절하기는 했지만, 〈은방울 꽃 천사〉와 〈행복의 별〉의 서사에서 공통점은 찾을 수 없다. 〈행복의 별〉 이외에도 연구자가 확인한 작품들은 일본만화와 시각 표현의 유사성은 분명하지만, 서사의 유사성은 찾을 수 없었다. 〈행복의 별〉은 사업가인 아버지와 명동에서 의상실을 경영하는 유명 디자이너인 어머니를 둔 무남독녀 유미를 주인공으로 한다. 기사가 운전하는 자가용을 타고 넓은 이층집에 사는 소녀 유미는 여명기 순정만화에서 흔히 그려졌던 가난하고 착한 소녀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캐릭터이다. 동화속 공주님을 1964년 한국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 작품에는 유미가 우연히 만나 집으로 데려온 금발의 소녀, 어머니의 의상실에 거액을 주고 드레스 제작을 의뢰한 정체불명의 여성,

아버지가 선물 받은 이집트 조각상 등 이국적인 등장인물과 수수께끼의 사건이 등장한다. 이 작품은 여명기 순정만화의 주된 테마였던 착한 주인공의 끝없는 고난 이야기와는 다른 재미를 독자들에게 선사했으며, 엄희자는 당대 최고의 순정만화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여학생〉(1964)의 향진은 1960년대 활동한 주요 작가는 아니지만²⁷⁾ 향진의 작품은 엄희자 이후 변화한 순정만화의 스타일을 보여준다. 세일러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등장하는 이 작품의 화풍은 특히 인물 표현에서 1960년대 인기 소녀만화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와타나베 마사코(わたなべ まさこ, 1929~)²⁸⁾의 초기 화풍과 매우 흡사해 이 작품 역시 소녀만화로부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여학생〉의 이야기는 주인공 정애와 비밀이 많은 정애의 친구 미자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작품에는 예쁜 교복뿐 아니라 피아니스트, 모텔 등 당시로서는 매우 낯선 직업이 등장하며, 작화는 여명기 순정만화와 차별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돌아간 줄 알았던 아버지가 병에 걸려 등장하거나 출생의 비밀을 암시하는 흔한 설정을 사용하여 서사 면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공주와 기사〉(엄희자, 1965)는 엄희자의 초기 작품으로 판타지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다. 이 작품은 ‘마귀’에게 붙잡혀 마법에 걸린 공주, 말을 할 수 있고 하늘을 나는 여우 등 환상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 작품 역시 타니 유키코의 작품에서 인물 표현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시각 표현의 독창성에는 한계가 있다.²⁹⁾

박수산의 〈보보공주〉(1965)는 공주, 왕자, 마법사, 마녀가 등장하는 전

27)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박물관에 소장된 향진의 작품은 『여학생』과 『헬멧』 두 작품 뿐이다.

28) 대표작으로 『유리의 성(ガラスの城)』이 있다.

29) 『소녀 프렌드』 1965년 5월 4일 호에 실린 타니 유키코의 단편 〈왕녀 카테리나(王女カテリーナ)〉와 인물 묘사가 거의 흡사하다.

형적인 동화 속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1965년 무렵부터 이러한 판타지 요소를 가진 순정만화들이 뚜렷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정작 기 순정만화가 여명기 순정만화와 선명하게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이 인기를 끌자, 박수산은 이후 제목에 ‘공주’가 들어간 작품을 다수 선보였다.³⁰⁾

〈산들바람〉(1966)의 권영섭은 1960년 〈울 밑에 선 봉선이〉로 본격적인 순정만화 시대를 연 작가이다. 봉선이 시리즈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뒤이어 등장한 여성 작가들이 순정만화를 혁신하며 인기를 끌자 권영섭의 스타일에도 큰 변화가 생겨난다. 〈산들바람〉에서는 권영섭 작품의 달라진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은미는 피아노에 재능이 있지만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피아노를 그만두게 된다. ‘예술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가난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녀’라는 설정은 순정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 유형이다. 이 작품은 봉선이 시리즈와 완전히 달라진 그림체를 보여주지만, 서사에서는 큰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은색의 십자가〉(권영섭, 1966)는 주인공 수미가 어머니에게 신비한 은색의 십자가를 받은 후 십자가를 찾으러 지구로 온 외계인들에게 쫓기며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외계인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신비로운 요소를 더한 작품이고 외계인의 등장 자체가 순정만화로는 드문 설정이지만, SF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작품은 1~3부로 구성되어 전체 약 30권에 이르는 장편이다. 십자가를 둘러싼 다양한 사건과 판타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푸른 등대〉(권영섭, 1967) 역시 판타지 설정과 전통적인 신화 요소가 결합한 작품이다. 주인공 소녀가 계모와 의붓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30) 『발레공주』, 『모란공주』(1966), 『백조공주』(1969), 『사슴공주』(1972) 등의 작품이 있다.

전형적인 신파 서사를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에 주인공 신애가 바닷가에 서 발견한 거북이를 바다로 돌려보낸 보답으로 신비의 거울을 얻게 되는 판타지 설정도 포함하고 있다. 거울로 인해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에 주인공 소녀가 거울의 힘을 좋은 목적에 사용하는 교훈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노래의 날개〉(엄희자, 1967)는 피아노에 큰 재능을 지닌 소녀가 사고로 손을 다치면서 겪는 불행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다. ‘출생의 비밀’류의 사건이 소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동시에 팔 부상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도 그려진다. 〈노래의 날개〉 역시 일부 장면이 1965년 1월 5일 자 『소녀 프렌드』에 실린 〈아코(亜子)〉(후카자와 이치오(深沢一夫)원작, 호소노 미치코(細野みち子) 그림)의 한 장면과 유사하다.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장래를 촉망받던 주인공 소녀가 사고로 손을 다쳐 재활 치료를 받는 장면인데 〈노래의 날개〉와 〈아코〉 두 작품 모두 유사한 장면이 등장한다. 그러나 주인공이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으며 손을 다치고 재활 치료를 받는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들 두 작품 역시 줄거리의 유사성은 크지 않다.³¹⁾

〈꽃 먹는 여왕〉(박수산, 1968)은 동화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은실 공주와 안토니오 왕자가 주인공이다. 화려한 궁전을 배경으로 드레스를 입은 인물들이 등장하며, 마법의 세계를 중심으로 마녀, 공주, 왕자가 주요 캐릭터로 설정되었다. 판타지 장르의 조형적 특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인공을 끊임없이 위협에 빠트리는 계모가 등장하는 점에서 여명기 순정만화의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새벽종〉 시리즈(엄희자, 1969)는 여명기 순정만화와는 전혀 다른 등

31) 김소원, 『시대가 그려낸 소녀: 한일 순정만화의 역사』, 소명출판, 2021, 117쪽.

장인물과 스토리를 선보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주도의 목장을 배경으로 〈새벽종〉, 〈고요한 새벽종〉, 〈맑은 새벽종〉 등의 시리즈로 출간된 인기 작품이다.³²⁾ 사업을 위해 외국 출장을 떠난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면서 집 안에 큰 어려움이 닥치지만, 도산 위기의 농장을 주인공 소녀가 살려내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 작품은 아버지의 부재와 가정의 위기, 주인공 소녀의 불행이라는 클리셰를 반복하지만,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여명기 순정만화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불행이나 위기가 길게 이어지지 않고, 주인공 소녀에 의해 해결되며, 주인공은 매우 씩씩하고 활동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이야기의 결말은 아버지가 크게 성공해 돌아오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정착기 순정만화가 밝고, 명량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공주 아리아〉(엄희자, 1969)는 한층 세련된 서사를 선보인 작품으로 유럽을 배경으로 한다. 속편인 〈공주 아리아-수난의 권〉, 〈공주 아리아-승리의 권〉으로 이어지는 장편 시리즈로, 나라를 멸망시킬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유로 버려진 공주가 바이킹에게 길러지고, 칼을 들고 싸우는 용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주인공 아리아가 겪는 다양한 모험이 주요 서사라는 점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출생의 비밀이 등장하고 주인공의 고난이 이야기의 중심이지만, 이를 풀어가는 방식은 여명기의 순정만화와 완전히 다르다. 주인공 아리아의 활약은 만화 속 남성 캐릭터의 역할과 다르지 않게 강인하게 묘사된다.

〈하얀 꿈길〉(윤애경, 1969)은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주인공 명애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출생의 비밀’을 서사의 동력으로 사용하지만, 명애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세계 곳곳을 다

32) 만화의 분량이 지나치게 긴 것도 규제 대상이었기에 인기 작품은 1부, 2부... 등으로 나누어 출간하거나 제목을 흡사하게 붙여 속편처럼 출간하기도 했다.

니며 다양한 모험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나는 인물이나 사건에 판타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주인공이 소녀라는 점과 시각적 묘사에서 정작기 순정만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지만 이야기의 진행 방식이나 배경, 주인공이 겪는 모험은 순정만화보다는 명랑만화에 가깝다.

〈행주치마〉(민애니, 1969)는 전통적인 여성을 상징하는 ‘행주치마’라는 소재에 판타지를 결합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행주치마가 등장하는데 행주치마를 착용하고 만든 음식이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힘이 있어 이를 통해 주인공은 여러 사건을 해결한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행주치마의 신비한 힘이 한국의 위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데 사용된다는 매우 교훈적인 결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산 소녀〉(엄희자, 1969)도 서사면에서 독특한 작품이다. 〈산 소녀〉는 외딴섬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자란 소녀 용녀가 섬에서 구출된 후 도시로 와 겪는 여러 사건을 그린다. ‘야생에서 성장한 타잔 같은 여자주인공’이라는 설정은 당시 순정만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특징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신체 능력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며, 이는 기존의 수동적인 소녀상에서 벗어난 주인공이 등장하며 순정만화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판타지의 부상과 순정만화의 진화

판타지는 현실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신화, 전설, 민담과 서양의 요정,

마법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판타지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³³⁾ 본 논문에서 분석한 작품의 판타지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하되 초자연적인 도구나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이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시공간은 크게 동양풍의 배경과 의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과 서양풍의 배경과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착기 순정만화는 많은 작품이 판타지 설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순정만화의 역사에서 판타지 장르의 비율이 이렇게 높았던 것은 이례적이다. 1970년대는 검열로 인해 이야기의 소재와 서사가 현실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극히 제한되었고 1980년대 주요 장르는 역사물이나 시대물이었다.³⁴⁾ 1990년대 이후는 전문 만화잡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장르가 다양해진다. 웹툰 플랫폼에서 판타지와 로맨스 판타지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는 최근의 일이며 1960년대 순정만화에서 판타지가 주요 장르로 자리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착기 순정만화에 판타지 작품이 다수 창작된 이유로는 우선, 환상성을 가진 동화가 인기를 얻었던 당시의 흐름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소년 독자들을 위한 SF 장르가 인기를 끌면서, 소녀 독자들에게는 이와 유사한 대체 장르로 판타지가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판타지는 동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타지는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등장하는 이야기, 혹은 초자연적인 시공간

33) 권혁준, 「판타지동화의 개념, 범주, 유형에 대한 재검토」,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6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09, 8-10쪽.

34)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거나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도 있었고 가상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되 특정 시대나 실존 국가를 직간접적으로 묘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대적 배경을 묘사했다. 이 시기 작품이 외국이나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한 것은 만화 검열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 1987년 이전까지 만화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묘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활동한 여러 작가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정의할 수 있는데 대단히 폭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SF 역시 비현실성을 포함하므로 판타지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³⁵⁾ 판타지 동화는 식민 지배와 독립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혼란과 비극을 겪은 이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기인 1960~1970년대에 “현실의 고달픔과 슬픔을 잊기 위해”³⁶⁾ 만들어졌고 인기를 얻었다. 1960년대 판타지는 당시 암울한 사회상을 반영한다. 식민 통치, 분단, 전쟁, 4·19 혁명, 군사 독재, 민주화 투쟁 등의 사건을 단기간에 겪으면서 민중이 느낀 고통과 좌절을 작가들이 작품에 투영했고 이는 시대적 비극으로부터의 해방 혹은 극복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³⁷⁾ 결국, 이 시절의 아동문학은 판타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 위축되기보다는 환상의 공간에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었다.³⁸⁾ 만화도 이러한 흐름을 따랐으며 작품 속 주인공들은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극복했고 독자들은 대리만족을 느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순정만화의 주요 독자가 10대 후반에서 성인층까지 확대되었던 것과 달리 1960년대 순정만화 독자는 주로 10대 초반 소녀들로 이는 동화 독자층과 겹친다. 판타지 동화에 익숙했던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판타지 설정과 플롯이 가미된 만화를 수용하며 즐길 수 있었다.

SF는 1960년대 소년들에게 권장된 장르이며 이는 과학 강국으로의 열망과 관련이 있다. SF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35) 권혁준, 「판타지동화의 개념, 범주, 유형에 대한 재검토」,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6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09, 17쪽.

36) 최정원, 「한국 SF 및 판타지 동화에 나타난 아동상 소고」,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4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08, 180쪽.

37) 방은수, 「한국 판타지 동화의 변신 모티프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265쪽.

38) 신현재, 「한국 아동문학의 환상성 연구- I -마해송, 강소천, 김요섭의 동화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제27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81쪽.

판타지와 비슷하지만, 과학적 지식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SF 장르는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중요시했던 국가적 과제를 반영하며 1960년대 학생 잡지에서 권장된 장르였다. 특히 청소년 교양잡지인 『학원』은 ‘과학의 신비’, ‘과학 소설’, ‘과학 기사’, ‘사이언스 토픽’ 등의 과학 관련 소설과 기사를 꾸준히 실었다. 이는 산업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다.³⁹⁾ 그러나 1965년 창간되어 당시 유일한 여학생 잡지인 『여학생』에는 과학과 연관된 기사나 소설이 없었다. 잡지는 현모양처나 모범적인 여학생이 되기 위한 교양을 강조했지만, 소녀들에게 과학적 호기심은 필요한 덕목이 아니었다.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공포된 이후 청소년 교육은 미래의 국민을 양성하고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⁴⁰⁾, 이상적인 소년상과 소녀상은 이처럼 서로 달랐다.

소년들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산업화를 완수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존재였지만, 소녀들은 현모양처로 미래의 국민을 낳고 기르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가정의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고 학교에서는 안전한 학생이어야 했다.⁴¹⁾ 그 결과 SF 장르에서 소년들이 지구를 지키고 외계의 적들과 싸우거나 과학자로 활약하는 동안 소녀들의 역할은 수동적이거나 악역으로 그려졌고 주인공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쳤다.⁴²⁾ 정착기 순정만화는

39) 이선옥, 「1960년대 과학주의 담론의 신체화-잡지 『여학생』에 나타난 소녀와 사춘기」,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27쪽.

40) 나윤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 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27-328쪽.

41) 『여학생』의 1960년대 기사와 명사들의 칼럼에서 명량한 소녀를 이상화하고 현모양처를 소녀들의 이상적인 미래로 제시했다.

42) 장수경, 「1960년대 과학소설의 팽창주의 욕망과 남성성-한낙원의 『우주항로』와 『금성탐험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3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272쪽.

다양한 장르로 변주되었지만, 스포츠, SF, 탐정, 액션과 같이 주인공의 신체적 능력이 강조되고 매우 능동적으로 활약해야 하는 장르는 등장하지 않았다. 순정만화에서 SF 장르가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일부 작가들이 SF를 시도했고 1990년대 순정만화 전문 잡지들이 다수 생겨나면서 SF 장르의 작품들도 증가했지만,⁴³⁾ SF가 순정만화의 주류 장르였던 시기는 없었다. SF 장르의 과학적 상상력을 정착기 순정만화는 판타지로 대체했다. 판타지는 당시 권장된 소녀상 안에서 주인공 소녀들이 활약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였다.

판타지는 순정만화의 시각적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진 장르이다. 판타지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순정만화의 시각적 혁신 이후였다. 화려한 의상, 인형 같은 외모의 주인공, 장식적인 배경 등 독특한 스타일이 정착된 후 판타지 장르는 큰 인기를 끌었다. 이들 작품의 상당수는 판타지 설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실과 완전히 다른 공간적 배경이나 인물이 등장하고 이들 배경이나 인물은 매우 화려하게 묘사된다. 환상의 세계를 특유의 스타일로 구현하며 높은 인기를 얻은 순정만화는 다른 장르의 작품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발전했다.

전후의 가난한 소녀들을 묘사한 작품은 주로 1960년대 초 인기를 얻었다. 착하지만 가난하고 그래서 삶이 고단한 소녀들의 반복되는 서사에 독자들은 피로감을 느꼈고 한국 사회는 조금씩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전쟁의 상흔이 치유되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주요 독자로 자리 잡으면서, 정착기 순정만화는 판타지라는 새로운 서사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잡지 연재소설이나 전집으로 해외 동화가 번역·소개되었고 창작 동화도 다채로운 판타지를 그렸다. 독자들은 현실보다는 동

43) 잡지의 특성상 다양성도 중요했기에 만화방용 단행본에서 SF를 창작한 적 없는 작가들도 잡지에 SF 작품을 연재하기도 했다.

화 속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판타지의 인기는 당시의 시대상을 투영하는 동시에 소녀들의 취향을 반영한 것이다.

4. 서사의 변주와 장르의 융합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순정만화의 서사에서 또 하나의 특이점이 나타난다. 여전히 판타지가 인기를 끌었지만, 주인공 소녀들에 대한 묘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캐릭터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주인공이 활약하고 사건이 벌어지는 시공간적 배경이 더욱 확대된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소녀’라는 신파를 기본 서사로 삼는 작품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점차 복잡해졌고, 고난에 처한 주인공들도 포기하거나 순응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또한, 소녀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대하는 주인공들의 태도는 훨씬 밝고, 명랑해진다. 주인공들이 단순히 고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성장하고 목표를 이루는 진취적인 소녀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여명기 순정만화의 대표적 작가인 권영섭의 〈울 밑에선 봉선이〉와 〈봉선이하고 바둑이〉(1961)는 온갖 고난의 끝에 주인공 봉선이가 사망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진다. 〈울 밑에선 봉선이〉는 어머니가 뒤늦게 봉선이를 찾아내지만, 이미 봉선이는 세상을 떠난 후였고 봉선이는 끝내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봉선이하고 바둑이〉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박물관에 마지막 권만 소장되어 있어 분석 텍스트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간첩에 끌려간 봉선이가 납치 음모를 막아내고 희생되는 결말을 보여준다. 여명기 순정만화의 인기 캐릭터인 봉선이는 용감하게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희생을 피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물이었다.

반면, 엄희자의 <새벽중> 시리즈는 소녀의 비극과 고난을 전개하는 방식에서 기존 작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제주도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새로운 품종의 소를 들여오기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갔다가 연락이 끊기고 주인공 은주는 고아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인다. 아버지의 부재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은주는 항상 밝고 명랑하게 이를 극복한다. 작품 전체에 우울한 분위기는 없으며, 은주는 대단히 긍정적인 태도로 사건을 해결한다. 여명기 순정만화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집안의 몰락과 주인공의 불행을 상징했지만, 1960년대 후반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주인공의 모험과 활약을 위한 장치가 된다. 예를 들어, 판타지 설정을 가진 윤애경의 <하얀 꿈길>은 주인공 명애가 사라진 아버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이 중심 줄거리지만, 아버지의 행방불명으로 주인공이 바로 불행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부재는 명애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모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정착기 순정만화에서 ‘순정’은 이미 증발하기 시작했다. 순종적이고 선행하기만 한 소녀는 더 이상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 여명기 순정만화의 등장인물들이 평면적이었다면, 정착기 순정만화의 주인공은 훨씬 입체적으로 변화했으며, 사건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소녀들이 늘어난다.

1965년 창간된 『여학생』은 교양 잡지를 표방했다. 『여학생』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소녀상을 잡지의 명사 칼럼, 기사, 연재만화 등에서 구현했고⁴⁴⁾ 특집 기사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1960년대 후반 한국 사회가 소녀에게 요구한 이상적인 덕목은 명랑함이었다. 가정에서 어머니를 돕고 집안 전체를 부드럽게 해주는 명랑한 소녀는 ‘명랑

44) 김소원, 「1970년대 잡지 『여학생』의 소녀 담론과 만화: 강요된 모범과 만들어진 명랑」, 『대중서사연구』 제27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1, 19-20쪽.

사회'라는 당시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⁴⁵⁾

그리고 정작기 순정만화의 배경은 매우 다채로워진다. 동화적 판타지 세계뿐 아니라 한국이 아닌 서구권 국가가 작품의 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외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1960년대 후반에야 등장했다. 예를 들어 엄희자의 <공주 아리아>는 유럽을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이 모두 서양인으로 묘사된다. 또한 <하얀 꿈길>의 주인공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부터 태평양의 섬나라까지 아주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며, 대사로도 여러 국가명이 언급된다. 정작기 순정만화는 기존의 인기 장르인 신파 플롯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계관이 확장되거나 일어나는 사건에 개연성이 강해진 다. 인기 작품은 30권 가까운 장편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편 서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력이 필요했고 이는 소녀의 고난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다. 엄희자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여성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이들은 스토리를 차별화하며 순정만화에 다양성을 더했다. 많은 규제와 한계 속에서도 순정만화는 착실히 발전하고 있었다.

5. 순정만화의 몰락

순정만화는 강화된 만화 검열⁴⁶⁾로 인해 서서히 성장을 멈추고 1970년 이후 만화의 내용과 형태가 크게 변한다. 만화 검열은 순정만화뿐 아니라

45) 이선옥, 「196, 70년대 잡지 『여학생』 특집 연구 -감정의 재배치와 국민 만들기」, 『여성문학연구』 제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305-306쪽.

46) 한국만화의 검열은 1961년 군사 독재와 함께 시작되었다. 1967년 6대 사회악의 하나로 만화가 지목되었고 1961년 발족한 한국 아동만화자유회가 심의에 대한 불공정 문제로 1968년 폐지된다. 이후 문화공보부 산하에 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만화 사전심의를 시작한다.

만화계 전체의 퇴보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1968년 8월 31일 문화공보부 산하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만화가, 언론인, 법조인, 여성단체, 아동문학가 등이 만화 심의를 맡았다.⁴⁷⁾ 이후 한국아동만화윤리강령, 한국아동만화실천요강 등을 법으로 제정해 만화에 대한 포괄적인 검열과 규제를 시작했다. 심의를 통과한 만화책은 표지에 심의 필 마크를 부착했고 심의 없이는 만화를 출판할 수 없었다. 중요한 점은 심의 기관명과 심의 강령에 '아동'이라는 단어를 명시함으로써, 아동용 만화가 아닌 만화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만화를 오직 어린이용으로 제한한 것이다. 검열은 순정만화를 포함한 모든 만화의 창작과 표현에 큰 제약을 가했다. 원고의 사전 검열을 강화해 만화 내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했고 내용뿐 아니라 만화책의 판형과 권수, 쪽수, 책을 만드는 종이까지 규제했다. 만화책 판형은 4×6배판으로 확대되었고 전체 쪽수는 130쪽 이상으로 편수는 상중하 세 권까지로 제한했고 종이는 조악한 선화지가 아니라 갱지로 대체해야 했다. 표지에 붉은색을 피하고 만화에서 이성 교제로 보이는 내용이나 사회의 어두운 면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작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취급했다.⁴⁸⁾ 게다가 만화 내용에 대한 검열은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착기 순정만화의 주류 장르였던 판타지는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판타지는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순정만화는 그림 표현까지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화려한 인물 표현은 사치를 조장하여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제한되었다. 1970년대 작품을 살펴보면 인기를 얻었던 판타지는 대폭 줄었고 어려운 환경

47)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편, 『간행물윤리 30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0, 19쪽.

48)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하』, 시공사, 1998, 274-275쪽.

을 극복하는 이야기나 효심, 악인의 개과천선 등 교훈을 강조한 작품이 증가했고 순정만화의 화려한 그림체는 1973년 무렵이 되면 거의 사라진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70년 이후 만화출판 사업에 뛰어들었던 소년한국일보사에서 간행한 작품에서 두드러진다.⁴⁹⁾ 게다가 세 권의 짧은 분량으로는 다양한 사건이 전개되는 장편 서사를 담아내기 어려웠다. 역지로 만들어진 교훈적 내용은 독자들에게 외면받는 원인이 되었고, 특유의 스타일까지 부정당하면서 순정만화는 빠르게 몰락했다. 1970년대 만화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단조로운 서사를 전개했으며, 화려하고 장식적인 표현도 완전히 사라진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작가들은 사실상 절필하거나, 작품 수를 줄이며 다른 장르로 이탈했고 일부는 만화계를 완전히 떠났다. 순정만화는 1980년대 다시 부활하기까지 긴 암흑기를 겪었다. 꾸준히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던 만화가 검열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후퇴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49) 연구자는 민애니, 『꿈속의 고향』, 우주문화사, 1970 / 민애니, 『밤하늘』, 우주문화사, 1970 / 민애니, 『별의 노래』, 우주문화사, 1971 / 민애니, 『앤의 초상』, 우주문화사, 1971(이상 원화) / 민애니, 『인형의 비밀』, 소년한국일보사, 1975 / 민애니, 『보이지 않는 행복』, 소년한국일보사, 1977 / 엄희자, 『고려자기』, 우주문화사, 1970 / 엄희자, 『황토길』, 우주문화사, 1971 / 엄희자, 『G선상의 아리아』, 소년한국일보사, 1972 / 엄희자, 『저녁놀』, 소년한국일보사, 1974 / 엄희자, 『네 앞 클로우버』, 소년한국일보사, 1976 / 엄희자, 『소녀의 꿈』, 소년한국일보사, 1976 / 엄희자, 『휘파람 소리』, 소년한국일보사, 1977 / 장은주, 『달래와 버들아씨』, 신일문화사, 1970 / 장은주, 『수선화』, 신일문화사, 1970 / 장은주, 『속죄』, 신일문화사, 1971 / 장은주, 『누이동생』, 신일문화사, 1972(원화) / 장은주, 『생명의 반지』, 신일문화사, 1973 등 주요작가(민애니, 엄희자, 장은주)의 작품 18편을 검토했고 이 가운데 판타지 설정이 있는 작품은 장은주의 『달래와 버들아씨』, 『생명의 반지』 두 작품이다.

6. 결론

만화를 비롯한 여러 대중문화는 사회를 반영하며, 순정만화도 예외가 아니다. 순정만화는 당대의 시대상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1957년 한성학의 〈영원한 중〉으로 시작된 한국 순정만화는 한국전쟁 직후의 우울한 사회를 반영하는 서사를 통해 인기를 얻었다. 이 시기 순정만화의 주인공 소녀들은 전쟁이나 부모의 부재로 인해 고통받았고 결국 체념하며 고난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당시 여성에게 강요된 헌신과 희생이 어린 소녀들이 읽는 만화에도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이 되면 순정만화는 일방적으로 고통받는 소녀의 플롯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순정만화의 혁신에 엄회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 엄회자는 순정만화의 시각적 표현에 혁신을 가져왔고 스타일의 변화는 서사의 확장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엄회자의 성공은 여성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소녀들의 불행 서사 대신 순정만화가 새롭게 집중한 장르는 판타지이다. 판타지는 1960년대 중반 이후 특히 인기를 얻은 장르로 주인공 소녀들이 마법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거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다. 만화 속 주인공들은 마법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찾았다. 판타지는 당시의 암울한 사회에서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동시에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쉼터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 판타지는 순정만화가 가진 시각적 화려함을 잘 살릴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다.

1960년대 말이 되면서 이야기의 소재나 세계관을 확장한 새로운 작품들이 등장한다. 작품 속의 사건은 다양해졌고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

해 주인공들의 활약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한다. 순정만화의 주인공들은 소년만화의 주인공처럼 히어로가 되거나 액션을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역할에서는 벗어났다.

순정이라는 단어로부터 오는 편견에서 순정만화는 오랫동안 어린이들이 보는 뻔한 이야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1960년대 순정만화는 제한적인 자료와 연구 부족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그러나 본연구를 통해 1960년대 순정만화에도 다양한 서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순정만화는 초기 전쟁과 신파 서사에서부터 판타지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서사로 발전했으며, 시대적 상황과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변화했다. 비록 검열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순정만화는 지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1960년대 만화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이 시기 순정만화가 대중문화의 하나로 그 가치를 재평가 받길 바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권영섭, 『울 밑에 선 봉선이』 상·하, 남훈사, 1960.
_____, 『산들바람』 1~9권, 명신문화사, 1966.
_____, 『은색의 십자가』 1~3부, 명신문화사, 1966.
_____, 『푸른 등대』 1~8권, 해동문화사, 1967.
민애니, 〈행주치마〉 1~3권, 우주문화사, 1968. (원고)
박수산, 『보보공주』 1, 7~10권, 백마문화사, 1965.
_____, 『꽃 먹는 여왕』 1~3권, 국제문화사, 1968.
송순희, 『사랑이 메아리치면』 1권, 한국문고, 1964.
엄희자, 『행복의 별』 1권, 제일문화사, 1964.
_____, 『공주와 기사』 2~3, 6~7권, 오성문화사, 1965.
_____, 『노래의 날개』 1~3, 5권, 새나라문화사, 1967.
_____, 『새벽종』 1~3권, 태창출판사, 1969.
_____, 『고요한 새벽종』 1~2권, 아세아문고, 1969.
_____, 『맑은 새벽종』 1~2권, 아세아문고, 1969.
_____, 『공주 아리아』 1~4권, 태창출판사, 1969.
_____, 『공주 아리아-수난의 권-』 1~3권, 아세아문고, 1969.
_____, 『공주 아리아-승리의 권-』 1~3권, 아세아문고, 1969.
_____, 『산소녀』 1~4권, 아세아문고, 1969.
윤애경, 『하얀 꿈길』 1~3, 5권, 신일문화사, 1969.
한성학, 『영원한 중』, 1957.
향진, 『여학생』 1~3권, 동원문화사, 1964.

2. 논문과 단행본

- 권혁준, 「판타지동화의 개념, 범주, 유형에 대한 재검토」,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6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09, 5-42쪽.

- 김소원, 『시대가 그려낸 소녀: 한일 순정만화의 역사』, 소명출판, 2021.
- _____, 「1970년대 잡지 『여학생』의 소녀 담론과 만화: 강요된 모범과 만들어진 명랑」, 『대중서사연구』 제27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1, 13-51쪽.
- _____, 『한국만화사 구술채록 연구』 권영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3.
- 나윤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 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23-374쪽.
- 박인하, 『누가 캔디를 모함했나: 박인하의 순정만화 맛있게 읽기』, 살림, 2000.
- 박재동 외,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1995.
- 방은수, 「한국 판타지 동화의 변신 모티프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255-286쪽.
- 서은영, 「순정'장르'의 성립과 순정만화」, 『대중서사연구』 제2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5, 147-177쪽.
- 서정남, 「신파적 서사 양식의 유입과 전개, 그리고 남북한 영화에서의 계승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제34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 141-178쪽.
-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하』, 시공사, 1998.
- 신현재, 「한국 아동문학의 환상성 연구- I -마해송, 강소천, 김요섭의 동화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제27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63-84쪽.
- 이선영, 이승진, 「순정만화의 장르 세분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제11권 5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248-265쪽.
- 이선옥, 「1960년대 과학주의 담론의 신체화-잡지 『여학생』에 나타난 소녀와 사춘기」,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25-254쪽.
- _____, 「196, 70년대 잡지 『여학생』 특집 연구 -감정의 재배치와 국민 만들기」, 『여성문학연구』 제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295~322쪽.
- 이승득, 「1950년대 아동소설 가족 담론 연구」, 『문창어문논집』 제48권, 문창어문학회, 2011, 291-317쪽.
- 장수경, 「1960년대 과학소설의 팽창주의 욕망과 남성성-한낙원의 『우주항로』와 『금성탐험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3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245-277쪽.

최정원, 「한국 SF 및 판타지 동화에 나타난 아동상 소고」,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4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08, 173-202쪽.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편, 『간행물윤리 30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0.

한상정, 「순정만화라는 유령 - 순정만화라는 장르의 역사와 감성만화의 정의」, 『대중서사연구』 제22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6, 297-325쪽.

図書の家 編, 『超展開 バレエマンガ 谷ゆき子の世界』, 立東舎, 2016.

Abstract

The Changes of Narratives of Early “Sunjeong Manhwa” - Focusing on the Years 1957-1969*

Kim, So-Won(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change of narrative of *sunjeong manhwa* from Han, Sung-Hak's *Eternal Bell* in 1957 to the late 1960s. It will be limited to the two periods from 1957 to 1964, Um, Hee-Ja's debut year, and from 1965 to 1969. Because Um, Hee-Ja's debut comics *A Star of Happiness* was very innovative and had a huge impact on *sunjeong manhwa* later on, I researched the collections of Korean Manhwa Museum in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and ChungKang Comics History Museum in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and lots of individual collections. Of them, I examined the mystery narrative of 17 works.

The narrative of early *sunjeong manhwa* established the unique narrative by reflecting the social reality and the readers' needs right after the Korean War. Early *sunjeong manhwa* focused on the resignation and sacrifice of girls as a tear-jerking narrative based on a bleak reality such as the war, the absence of parents, poverty etc. This is the result that the perspectives of devotion and sacrifice were forced to the women of the time, which was projected in the comics. *Sunjeong manhwa* broke away from the outdated tear-jerking form and sought the changes by adopting fantasy genre as a major narrative since the mid-1960s. Fantasy was greatly loved by the readers by maximalizing the splendid visual expressions peculiar to *sunjeong manhwa*. Reaching the late 1960s, it started to show round and active characters while extending the range of narratives. Like this, *sunjeong manhwa* chang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th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3S1A5B5A16082453)

passing of time. However, the censorship on comics which was reinforced since 1968 was the decisive factor that impeded the growth of *sunjeong manhwa*. Censorship limited comics to children's. Furthermore, censorship repressed *sunjeong manhwa*'s glamorous visual expression and its freedom to develop full-length narrative. As a result, *sunjeong manhwa* fastly declined.

This study investigated that *sunjeong manhwa* in 1960s developed the narrative of *myoungsang* which used various subject matter after tear-jerking and fantasy. Through this study, I revealed that the *sunjeong manhwa* in the 1960s was finally developed into the narrative of *myoungsang* which used diverse materials from *sinpa* to fantasy, and was changed by swiftly reacting the situation of the times and the readers' needs.

(Keywords: *sunjeong manhwa*, comics, Korean comics, tear-jerking narrative, fantasy, *myoungsang*, narrative of *sunjeong manhwa*, 1950s, 1960s)

논문투고일 : 2025년 01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5년 02월 16일

수정완료일 : 2025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5년 02월 19일